4중 반전(反轉)

(눅23:1-12)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6.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4중 반전(反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4중 반전, 반전이 네 번 연속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일어납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뭐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으신 것이 자주 접하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

인들에게 상식이 돼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게 마음 쓸 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굉장히 급박하게 반전에 반전이 이어져 나갑니다.
이 재판의 모습을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로 일어나고 있는 반전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추적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반전이 나에게서 일어나면 나에게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세 번째 반전에 이어서 발전적으로 순리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반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에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보내지시고, 헤롯도 이렇다할만 한 특별한 죄목을 정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이때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돼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관계에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은 유대백성들을 다스렸고, 치안과 정치적으로 연관된 문제와 군사문제 등을 빌라도가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문제는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있어서는 월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이 치안유지의 일환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 재판 때는 서로 화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반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유대 군중들의 입장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좇던 추종자들이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국과 애족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하늘 아래 같이 살 수가 없는 원수들이라는 얘기에요.
빌라도는 식민지 종주국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분봉왕 헤롯은 유대사람이 아닌데 유대 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민족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유대민족에게 원수 민족 출신인 에돔 사람이 지금 왕으로 있는 거예요.
마치 일본의 극우성향을 띠는 정치인 집안에서 한 자손이 한국으로 와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목을 찾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반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추종의 이유가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무찔러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반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와 헤롯은 민족의 원수인데, 이 원수들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외의 일이라는 겁니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일본 식민지시대에 일본 법관들이 안중근 의사에게서 전혀 잘못을 찾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유관순 누나에게서 전혀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유관순 누나가 3.1운동을 해서 잡혀갑니다.
잡혀서 일본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서도 만세를 부르며 항거하면서 '내가 대한국민으로써 일본의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외치는 바람에 법정모독죄까지 가산이 되어 원래 4년 형을 때렸는데 3년이 더해져서 7년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계속 만세를 부르고 하다가 결국 일본인들에게 토막이 나서 19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에게서 일본사람들이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한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어떤 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유관순 열사는 심장마비로 죽은 거지 일본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었고 내막적으로는 일본사람들이 전혀 유관순에게서 죄를 찾

지 못했다, 왜냐하면 일본사람들과 짜고 유관순이 일본에 악감정인 사람을 색출해내기 위해 만세를 선동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민족의 원수들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민족의 원수들이 잘못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들이 잘못을 못 찾아낸 겁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은 지구 바깥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아버지를 가리키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구 바깥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역설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구 안에서 뭔가 일을 벌여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지구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시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랄 게 없는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정치 9단들의, 주님께서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교활한 자들의 촉수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중에, 그렇게 많은 센세이셔널 한 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권에 갈등요소로 등장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전부 식민지하에 있건 헤롯이 에돔 출신의 유대왕으로 다스리고 있건 상관없이, 이 땅에 붙어있는 마음을 땅 바깥으로 빼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갈등요소가 없는 겁니다.
반전이지요,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잘못을 못 찾아낸다는 것.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지구 바깥에 예수님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을 전부 지구 바깥으로 빼내려고 했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는 갈등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화해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권과 갈등이 빚어질 만한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마귀에게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 지구 안에 묶어두는 겁니다.
지구에 가까이 와서 붙어있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가면 되는 것,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과 회의와 프로그램에 묶여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안 가면 돼요.
목사님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땅 위에서 부흥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마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부흥에 마음을 둘 경우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마귀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교인들 앞에서 역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바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끝까지 나갈 테니까.
그러니 교회가 많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살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마귀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쁜 자식 낳고 그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크는 것,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 거기다 두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위의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나라에 묶여도 되고, 애족에 묶여도 되고, 사업을 번듯하게 해도 되고, 윤리적으로 잘 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의 가치들을 포장하고 가치들에 윤기가 나도록 반질거리게 닦아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가치로 어필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만족이 되고, 진짜 행복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지구 바깥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이 땅에 묶어두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휴지로 만들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구 바깥에 진짜 기쁨과 행복의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근거를 모든 사람에게 무상을 제공하면서, 자기가 땅에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돈 건강, 가정의 화목, 애국애족, 이런 것들을 무색하게 빛이 바라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은 거거든요.
지구 안의 가치를 놓고 싸울 때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이 가능한데, 지구 바깥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왔으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움직여서.
빌라도로서는 이성적으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죽이는 겁니다.
결국 뒤에 마귀의 지배 하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구 바깥으로 빼내려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지구라는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분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을 수 있는 약이 돼버리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버린 것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반전까지가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치밀한, 마귀의 힘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마음을 역이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까지 이루시면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놀라운 반전이에요, 의외의 반전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영원히 기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네 번째 반전은, 아~무도 그 길을 안 간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먹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먹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성경 본문이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 사함을 연결할 때 한 마디 언급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트리플 반전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생활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사는 것을 보니까, 아무도 직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엄마도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어필했던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움직이고들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가치에서 떠나서 천국에 계시는 그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지요, 마귀가 볼 때 반전입니다, 반전.
다 망한 줄로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자가 없는 겁니다.
설교 듣고 나면 끝나는 것이고, 목사님들도 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안다면 이것만 전해야지요, 알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 자신이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먹지 않고 있으니까.
'와~!'
목사님들에게서 일어나는 마귀들의 환호와 반전이에요.
다 망한 줄 알았던 마귀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 반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2000년 동안 성경에 쓰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로 이 재판의 반전의 고리에 참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이 이천 년 전 예수님의 재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세우신 반전의 고리들이 이어져서 나타난 구원의 길인데, 이것을 먹으라고 이 재판의 과정이 쓰여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나면서 마귀의 집단에서 축하연이 베풀어집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먹는 거예요.
혈압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한 사람은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오니까.
마찬가집니다.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애착이 가고,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고, 이 세상에 소원이 생기는 죄적인 마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이 죄성이 여지없이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애착이 생기고 이 세상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죽으심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이 재판을 묵상하시면서 4중 반전의 고리 중에 마지막 고리를 잘라내면서 마귀에게 사형을 선언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선언하신 마귀의 사형을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선언하시고, 오직 하늘만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만이 내 삶에 가득가득 쌓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로 마귀의 날뛰는 그 능력과 힘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이루어내신 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반전으로 마귀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대신에 순리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마귀의 영역에 내 생활 속에서 온전한 사형선고를 날마다 언도하는 그런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